

대형마트 적은 전남, 소매판매 증가율 전국 최고 이유는?

코로나에 '집앞 소비' 증가...7~9월 3.4% 늘어 3분기 연속 ↑ 광주 서비스업 생산액 2.5% 감소...예술·스포츠 43%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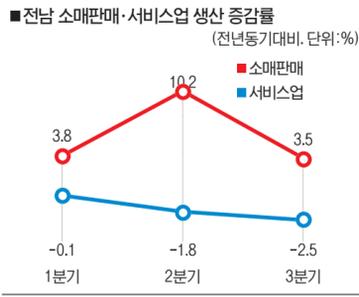
대형 소매점이 많지 않은 전남지역 소매판매 증가율이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역 서비스업 생산액은 줄었는데, 광주·전남 모두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의 타격이 컸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사·도 소매 판매 동향'에 따르면 3분기(7월~9월) 지역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광주는 1.7% 감소했고, 전남은 3.4% 증가했다.

전국 평균 소매판매액은 1.8% 증가를 나타냈다. 전남 증가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올해 들어 1분기(3.8%), 2분기(10.2%), 3분기(3.5%) 연속 증가 폭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 3분기 소매판매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그러나 올 2분기에 비해서는 5% 감소했다. 광주 3분기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1.7% 감소했는데, 지난 2분기(7.9%) 증가세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30.4%)였다. 인천(-9.4%), 서울(-7.8%), 부산(-2.5%), 광주(-1.7%), 대구(-1.3%), 강원(-0.7%), 충북(-0.2%)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전남(3.4%), 충남(1.7%), 경남(1.3%), 대전(0.9%), 울산(0.9%), 경기(0.7%), 경북(0.6%), 전북(0.5%) 등 8개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 앞 소비' 증가 영향 등으로 소매판매가 소폭 증가했다. 같은 날 공개된 서비스업 생산액은 광주와 전남 모두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전국 평균적으로 생산액은 1.7%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액이 늘

어난 곳은 서울(2.2%)이 유일했다. 광주·전남지역 모두 올 들어 서비스업 생산액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광주 전년비 생산액 감소율은 1분기(-0.4%)→2분기(-1.7%)→3분기(-2.5%) 연속 확대되고 있다. 전남 감소 폭도 0.1%→1.8%→2.5%로 마찬가지로. 광주 서비스업 생산액 증감률을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여가(-43%)와 숙박·음식점(-21.6%), 운수·창고업(-17.5%) 타격이 컸다. 금융·보험(17.8%)과 부동산(18%) 업종은 1년 전보다 생산액이 늘었다.

전남에서도 예술·스포츠·여가 업종 생산액이 17.1%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운수·창고(-15.8%), 숙박·음식점(-14.6%) 업종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지역도 금융·보험(14.2%), 부동산(11.3%) 업종은 전년보다 호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2.83 (+5.63)
↓ 코스닥	840.79 (-10.42)
↑ 금리 (국고채 3년)	0.990 (+0.031)
↑ 환율 (USD)	1115.10 (+1.20)

한전 미디어 콘텐츠 공모 대상 상금 2배 확대

12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이 '2020 한국전력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한다.

대상 상금이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확대됐다.

한전은 9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참가자를 온라인(kepecocontest.co.kr)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제는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에너지 세상'이다. 전기의 가치, 합리적인 전기 사용,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의 내용을 5분 이내 분량 영상이나 10장 이내 카드뉴스에 담으면 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영상 5명·카드뉴스 3명 단위 팀을 이뤄 응모하면 된다.

한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에너지산업과 이를 선도하는 한전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전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작품, 영상·카드뉴스 부문 우수상 6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방침이다. 대상 800만원 등 수상자에 총 2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한전의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전국 마이스터고교생 대상

한전KPS 비대면 온라인 수업

한전KPS가 전국 마이스터고교생 11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나누시 다도면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25개 마이스터고(실업계) 학생 113명을 대상으로 'KPS-패러데이 스킵'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열리는 이 교육은 전력산업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PS는 자사 장비와 정비 기술명장을 활용하며 차세대 기술명장을 길러내고 있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로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간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전력산업 구조와 발전원별 계통 등을 이론 학습하고, 영상과 사진으로 전력산업 분야 설비실습을 대체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배추·무값 하락...양념채소값 급등

양파 1kg 2500원...전년비 92.3% ↑

이달 들어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 달 말에 비해 20~30% 정도 내렸지만 양념채소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9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농산물 소식지 '일마요 2019호'를 10일 발행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1포기는 2주 전보다 20%(-1000원) 내린 4000원에 팔렸다.

무 1개 가격도 2주 전 2800원에서 2000원으로 28.6% 하락했다.

하지만 김장 양념채소는 1년 전보다 30~90% 넘게 뛰었다. 2주 전에 비해서도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건고추 100g 가격은 1만7300원으로, 1년 전(1만1000원) 보다 57.3% 올랐고 2주 전(1만6600

원) 보다 4.2% 상승했다.

간마늘 1kg은 전년 5500원에서 이달 9일 8000원으로 45.5%(2500원)이나 뛰었다.

양파 1kg 가격은 1300원에서 2500원으로 무려 92.3%(1200원) 상승했다. 대파 1kg 가격은 3300원으로 전년보다 32%(800원) 올랐다.

aT 관계자는 "건고추는 올해 잦은 비로 인해 병해충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며 "반면, 배추와 무 등은 김장철 공급부진이 우려됐으나, 작황호전과 출하지역 확산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등으로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aT 측은 "11월 하순~12월 상순경 남부지방 김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장철을 맞은 중부지방으로 공급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내 반입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배추와 무 등 김장관련 품목은 오름세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H 가족, 농가 일손돕기 농협 광주본부와 NH농협은행 광주본부, NH농협은행보통 광주충국 임직원 30여명은 북구 효호동 농가를 찾아 단감 수확을 도왔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한전, 광주첨단산단에 종합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전력은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에 자체 개발한 종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뉴딜'(경제부흥) 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에 참여한다.

한전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명은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제조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 대상지는 첨단산단과 구미 국가산단이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K-BEMS'를 이들 산단에 적용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 간 에너지를 공유·거래를 가능케 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것으로 한전 측은 기대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쌓아온 에너지 관리 기술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현산 대상 계약금 몰취 소송 제기

현산, 금호리조트 매각 반대 공문

HDC현산사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지 2개월만에 후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현산이 냈던 보증금(계약금)을 몰취하게 해달라며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막을 올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일 현산을 상대로 계약금 몰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질권(담보) 설정으로 묶여있는 계약금 2177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질권을 해지해달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면서 진행던 인수 협상은 올해 9월 무산됐고, 이후 계약금을 두고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

인수 무산 직후 현산과 금호산업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현산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대주인 금호산업에 금호리조트 등 아시아나항공 종속 회사를 현산 동의 없이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를 표출한 것보다는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